

용수 스님의 아침편지

알아차림의 힘

명상을 10년, 20년 했어도 진전이 없고 마음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핵심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수행의 핵심, 불교의 핵심은 '알아차림' 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실천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고통이란, 윤회란 산란함입니다. 산란함이란 생각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 속에 살고 생각 밖은 모릅니다. 그저 생각이 좋으면 행복하고 생각이 안 좋으면 불행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넘어서면 마음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성의 무한한 사랑, 힘, 지혜 등을 경험하려면 '알아차림' 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을 '사마타' 라고 합니다. 사마타란 마음이 고요하고 여유롭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타가 되면 통찰이 오고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비결은 알아차림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도' 에 달려 있어요. 의도가 알아차림을 자주 경험하게 합니다. 의도를 갖고 강화하는 것이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키포인트입니다. 의도 없이 살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의도는 알아차림을 지켜보겠다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방향입니다. 마음을 바로 잡는 겁니다. 불 밝게 켜고 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있으면 무엇을 해도 수행이며 알아차림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수행이 아닙니다. 알아차림이 업장소멸 공덕자량입니다. 하루하루 의도를 가지고 살면 처음에는 정말 어렵고 잘 안 되지만 1년 뒤에는 마음이 많이 달라져요. 수행의 핵심을 놓치지 마세요. 설거지 하면서 알아차림을 다섯 번 가지는 것이 절에 다섯 번 가서 소원 비는 것 보다 공덕이 더 큽니다.





진광 스님의 길 위의 풍경들

② 실크로드-병령사 석굴서 가욕관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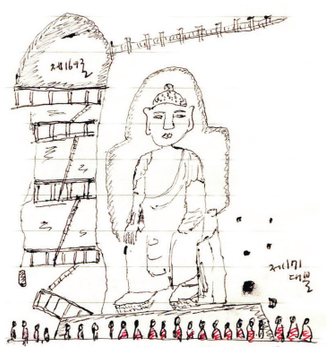
황하는 바다로 흘러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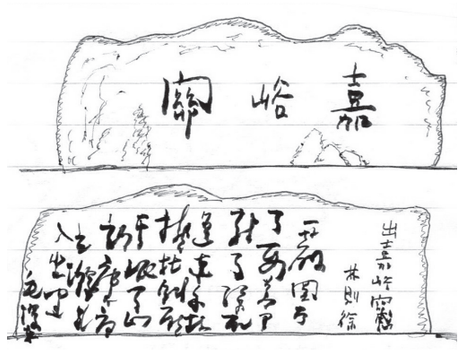
실크로드의 요충지인 란저우(蘭州)는 중국의 심장인 황하(黃河)가 가로지르는 곳으로 유명하다. 황하의 누런 강물이 도도히 흐르는 것을 바라보며 당대의 서역개척자인 장건(張騫)의 웅혼한 문장이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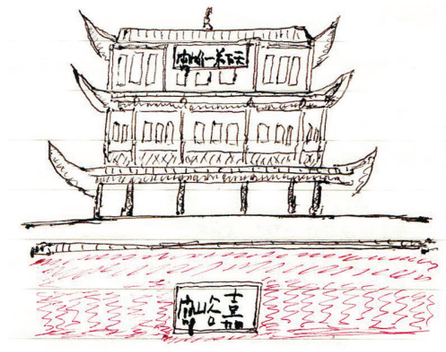
"곤륜산을 타고 흘러내린 차가운 물사태가 사막 한가운데인 염택에서 지하로 자취를 감추고, 지하로 잠류하기를 또 몇 천리. 청해에 이르러 그 모습을 다시 지표로 드러내어 장장 8,800리 황하를 이룬다."

위당 정인보 선생이 김구 등 임정요인 귀국환영회에서 이를 들어 감격을 표현했다고 한다. 필자는 이 문장을 보면 불교나 선불교, 혹은 조계종의 역사를 보는 듯 가슴 뭉클한 심정이다. 그 옛날 목숨을 걸고 이곳을 지나 천축으로의 구법을 했던 숱한 천축구법승들과 대당유학승들이 생각나서다. 그들의 피땀 어린 구도열과 위법망구의 보살행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불교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금 한국불교와 우리 자신은 황하에 비유하면 과연 어디쯤에 서 있고,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황하가 바라보는 곳에 황하의 여신이 아이를 안고 있는 석상이 있다. 마치 관세음보살이 선재동자를 품고 있는 듯하다.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 구법여행을 하는 것이 우리의 순례와 비슷한지라 무장무애와 원만회향을 빌어본다. 황하에는 양의 내장에 바람을 집어넣어 잔뜩 부풀린 채, 여러 개를 엮어 뗏목을 만들어 타고 다닌다.







병령사 석굴 제169굴과 만리장성 서쪽 관문 가욕관 입구.

란저우, 실크로드 요충지 '유명'
병령사 석굴, 서역행 주요 지점
서진~청대 1500년 걸쳐 조성돼

문득 이곳에서 평생동안 선자화상(船子和尙)처럼 뱃사공이 되어 미혹한 이를 피안의 언덕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병령사(炳靈寺) 석굴로 가려면 보트를 타야한다. 유가협 댐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병령사 석굴은 소적석산(小積石山)에 있는데 실크로드의 길목인지라 승려와 상인들이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 여행길에 올랐다고 한다. 이곳에는 183개의 석굴에 불상이 776체나 봉안되어 있다고 한다. 서진에서 청대에 이르기까지 1,500여 년에 걸쳐 조성된 것들이다.

대부분의 석굴들이 굴을 파고 그 안에 불상과 벽화 등을 조성한 것과는 달리, 병령사 석굴은 굴을 파지 않고 암벽 자체를 조각한 마애불이 많은 게 특징이다. 이곳의 백미는 단연 제169호 석굴이다. 석굴이 가장 크고 불상이 가장 많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조성연대를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다.

제171호굴에는 높이 27m의 현암좌불의 대불이 있다. 그 앞에서 대중이 모여 부처님께 예불을 올렸다. 반대편에서 바라다보면 대불 아래 예불하는 스님들의 모습이 너무나 장엄하고 아름다워 눈물이 났다고 한다. 매양 느끼는 것이지만 스님들이 한데 모여 예불 드리는 모습만큼 장엄하고 감동적인 모습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의식 자체가 불교를 보여주는 문화이자 전법교화의 방편인 동시에 불교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예불 올리는 스님들조차 감동해 눈물을 다 흘릴 정도이다.

우리 일행 중에는 청출(청암사 승가대학 출신)이 7명이나 함께 순례를 왔다. 그들이 우리 1호차에 동승하게 되었는데 일명 '칠딱서니파' 가 그들이다. 아직 젊어서인지 철딱서니는 없어도 그 자체로 신선하고 활달한지라 보기에 참 좋다. 이 스님들이 마치 여고생 수학여행이라도 온 듯이 천방지축에 난리법석이다. 그래서 "누가 너희들 두목이냐"고 물으니 당돌하게도 "혜총 스님(조계종 前포교원장)이요"라고 한다. 어쨌든 우리 순례의 분위기 메이커이자 마스코트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

가욕관(嘉峪關)은 만리장성의 서쪽 끝 관문으로 유일하게 건설 당시 그대로 남아있는 건축물이다. 최동단의 산해관(山海關)은 '천하제일관(天下第一關)' 이라 칭하고, 가욕관은 '천하제일웅관(天下第一雄關)' 이라고 부른다. '천하제일웅관' 글씨는 중국불교협회장을 지낸 작고한 조박초(趙樸初) 선생의 웅혼한 필체이다.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용을 보는 듯 천의무봉의 솜씨이다.

가욕관성에 오르니 멀리 기련(祁連)산맥의 설산 영봉이 끝없이 이어지고, 눈을 서쪽으로 돌리니 실크로드 사막길이 몽환처럼 아른거린다. 이성을 나서면 이젠 미지의 사막이자 목숨을 건 사투가 끊임없이 펼쳐지리라.

당대 왕창령의 '종군행(從軍行)' 이란 시에 "푸른 바다 긴 구름 설산을 가리고 외로운 성채에 올라 아득히 옥문관을 바라본다. 사막에서의 온갖 싸움에 황금옷 다 헤어져도 누란을 격파하지 않고는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라"라는 글이 생각난다. 아마도 이곳에 선 천축구법승의 마음도 이와 같았으리라. 어쩌면 다시는 못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며 이 길을 떠났을까?

나도 그 천축구법승의 마음으로 길 위에 섰다. 당대 왕지환의 '등관작루(登鸛雀樓)' 라는 시에 "해는 서산에 지고, 황하는 바다로 흘러든다. 천리를 보고자 할진댄, 다시 한 층 누각을 더 오르거라(白日依山盡 黃河入海流 欲窮千里目 更上一層樓)"라고 했다. 누군가는 시대와 역사를 앞서 나가며 새로운 모험과 도약을 이루어야만 한다. 한 층 누각을 더 오르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

〈조계종 교육부장〉

그림 족자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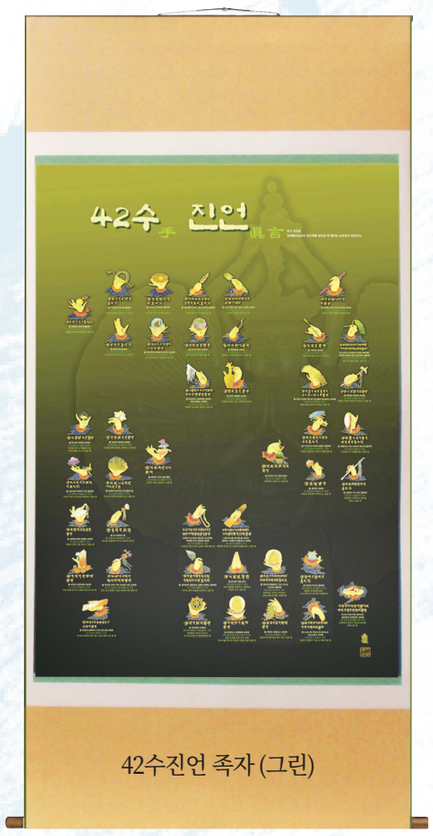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卍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80,000원	
	사찰용 65×145cm 가정용 45×110cm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